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서부터 신개념 사료 개발, 사료의 현장관리 및 수입제도 등 사료의 생산 및 관리, 수입 관련 사항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 열려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사)한국단미사료협회가 주관하고 농림부가 주최한 '사료 품질 및 위생·안전성 교육'이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농·축산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간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6개 주제로 나뉘 친환경 축산의 기본이 되는 사료의 품질 제고 및 위생적인 생산·관리를 위해 산·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째날 첫 번째 연사로는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윤기호 과장이 나서 '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대책'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윤 과장은 사료정책 추진 기본방향에 대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사료의 안전성 확보'라고 설명한 뒤 이를 위해 "HACCP 인증제도 확대 등 사료품질 및 위생안전성 강화, 불필요한 규제 완화 및 사료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령 개정, 사료 원가 및 축산물 생산비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료관리법령 개정과 관련해 "사료검정 체계 개선, 제조업 등록완화, 기타 사료의 위생·안전

성 강화 및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008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개념 사료의 개발’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축산연구소 영양생리과 이병석 과장은 “사료의 개념이 1970~80년대 축산물 생산 증대에서 1990년대~현재는 축산물의 질적 증가 가능, 미래에는 나노기술 응용, 독성물질 및 불용성 물질 사료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친환경 사료 중 항생제 대체사료인 산제, 생균제, 난소화성올리고당, 식물추출물, 뉴클레오사이드, 광물질 등의 특징을 설명하고 약취물질의 특성 및 생성경로, 발생저감 방안, 매탄저감사료, 건강기능성 사료, 나노기술 사료 등 신개념 사료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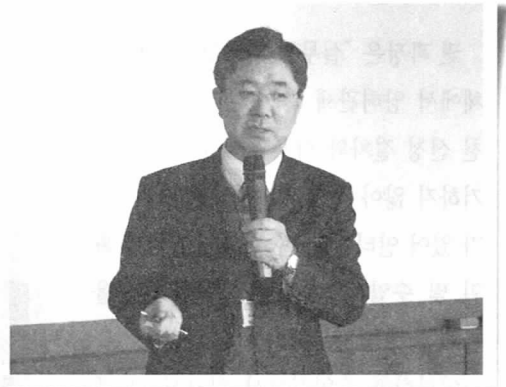
세 번째 주제인 ‘국내 사료산업의 현 주소 및 발전방안’을 강연한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오상집 교수는 사료산업이 변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우리나라 사료 소요량의 정체, 동물의 사육 목적·인증시스템 다양화, 동물 관련 질병

및 축산물 안전 위협 문제의 대두, 사료 자원부족 심화 및 원료 사료의 다변화, 친환경 지속 축산의 강화 및 법규화, 건강·기능성 축산물의 수요 증가, 축산물 및 사료시장의 경쟁 심화를 꼽았다.

오 교수는 사료산업 발전의 추진력은 “생산자의 선도와 자발적 협력, 행정시스템의 합리화, 사료업계의 공존 협력 구제와, 실질화, 현실적 연구와 인적자원 개발”이라며 “이 시대는 사료제조 하드웨어 기술발전의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최적응용에 의한 경영합리화의 시대”라고 강조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손한모 수의사무관은 제4주제로 ‘수입사료의 검역제도’를 맡아 검역 관련 법령 및 수입축산물 검역 절차, 수입 조사료 검역, 애완동물 사료 및 사료 관련 축산물 검역 등에 관해 설명했다.

둘째날에는 (사)한국단미사료협회 기획조사과 권현무 과장이 다섯 번째 연사로 나서 관세추천 및 수입신고 등 ‘사료의 수입제도’에 관해 설명했다.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윤기호 과장



▲ 유동준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권 과장은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업체에서 양허관세 및 할당관세 등의 추천 신청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지 않아 관세 추징을 당하는 사례가 있어 안타깝다”며 추천 유효기간 확인 및 수입 후 용도변경 등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입신고시 안전성 및 품질관련 수입신고 대상 190개 품목에 포함 여부와 수입신고서가 현물검정인지 서류검정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인천광역시 농정과 이동기 주무관은 ‘사료의 생산·판매·검사 현장관리’를 주제로 제조업 등록, 성분등록 관련규정,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사료 검사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각 업체에서 친환경 축산에 대한 마인드로 앞장서 규정을 준수하고 위생적으로 사료를 생산·관리해야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교육은 매 강연에 대부분의 참석자가 자리를 지키는 등 열의를 보였으며 실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다뤄져 큰 도움이 됐다는 평을 받았다. ㉟



▲ 본회 권현무 과장이 ‘사료의 수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플로어를 가득 메운 참가자들.

